

##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전북도-여가부, "정부 이송되면 내달 안 공포 예정" 내년에는 조직위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체제 돌입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해 9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매달 2차례의 협의회(23회)를 갖고 기관별 잼버리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과정을 거쳐 법률안 초안을 작성, 올해 4월 30일 찬성의원 22명으로 잼버리 특별법이 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의견수렴(5~10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입법이라고 오인해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라북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19회(실무자 13회, 지휘부 6회)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취지 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했다.

특별법이 예상보다 신속 통과된 배경에 대해서는 중요순간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북출신 진선미 여가부장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정당별로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과 송희경의원은 자유한국당, 정운천의원은 바른미래당, 김중희 의원은 민주평화당,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들에 대한 물밑 작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잼버리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국가나 지자체가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

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관련 예산확보 용이,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 전주, 사회혁신 전진기지 '우뚛'

### 시, 사회혁신 한마당 개막

전주시가 국내·외 사회혁신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전국단위 행사인 '사회혁신한마당'을 개최한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에서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변화시키는 서노송예술촌, 폐공장을 문화예술전시장으로 만든 팔복예술공장, 백제대로를 사람·생태·문화의 길로 만든 첫마중길 등을 국, 내외에 널리 알린다.

개막식은 김경민 사회혁신한마당추진위원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오니시 겐스케 피스윈즈 재팬 대표와 국내외 사회혁

신 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사회혁신 활동가와 시민들과의 첫 만남의 장인 이번 사회혁신한마당의 첫날 개막식에서는 오니시 겐스케 피스윈즈 재팬 대표가 개막연설을 통해 살처분 대상이었던 히로시마의 유기점들을 재해지역 구조경으로 혼란시켜 성공한 '피스완코재팬'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날 전주 선미촌에서는 개막행사의 일환으로 소통협력공간 비전선포식도 진행됐다. 소통협력공간은 중공업 쇠퇴로 내리막길을 걷던 스페인 중소도시 발바오의 사회혁신과 크를 모델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혁신공간이다.

특히, 이번 사회혁신한마당에서는 '잡 못드는 전주' 프로그램이 30일 오후 5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 설치되는 씬아고라 존에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행사 3일간 각각 △지역혁신 △비영리혁신 △생활혁신을 주제로 김제선 희망제작소장, 유지환 팜프라 대표, 박종현 강남과기대교수, 양경준 크립톤 대표, 클레어 장 대표, 요코하마 유키코 대표 등 국내외 사회혁신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및 세미나, 주민주도 컨퍼런스 및 발표대회, 워크숍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호철 기자

## 교육부 '에듀파인' 시범 도입

###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시범운영 의무화는 2020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에 한해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시설비 등의 모든 예산의 거래사실을 반영해 회계 처리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1년간 시범운영 후 2020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 및 국공립유치원에 사용 중인 에듀파

인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의 회계 특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기능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행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와 설립자에 대한 보상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성 기자

## 전북현대 새 사령탑 조세 모라이스 선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이 새 사령탑으로 조세 모라이스(53·포르투갈) 감독을 낙점했다.

전북은 중국으로 가는 최강의 감독 후임으로 인터뷰를 레알 마드리드, 첼시 등 유럽 팀에서 조세 무리뉴 감독과 함께 수석코치로서 팀을 챔피언으로 이끌었던 모라이스를 전북의 5대 감독으로 선임한다.

창단 이래 첫 외국인 감독이다. 전북은 유럽에서 지도자 경력을 갖춘 모라이스가 전북현대가 추구하는 축구철학과 팀 위상에 부합하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무리뉴 감독과 함께 2009~2010 인터밀란(이탈리아)에서 트레블(UEFA 챔피언스리그, 컵,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얻은 유럽 챔피언의 노하우를 높이 평가했다.

또 유럽의 선진 축구를 바탕으로 알사람(사우디)에서 경험한 아시아 축구 특성을 K리그에 접목해 전술적 다양성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999년 포르투갈 명문 벤페야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모라이스는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첼시 등 유럽 명문팀을 비롯해 많은 유럽 팀에서 수년 간 지도자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 카르파티 리비우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모라이스는 "전북의 명성을 잘 알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 기쁘고 크고 선수들과 빨리 만나고 싶다"며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그동안 유럽에서 쌓아온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전술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백승권 단장은 "전북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물"이라며 "다양한 전술적 능력과 유럽 챔피언의 경험은 우리 팀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임실치즈펜션 'open'**

1층

2층

3층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형 관광지

#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